



농사는 돈으로 환산할수 없어

지금이야 수확철에 콤바인, 트랙터 같은 훌륭한 농기계가 벼나락을 거두어 건조까지 해주는 첨단농업 시대이지만, 마을에 경운기 한두대가 전부였던 30년전 가을 걷이는 정말 손이 농사도구이 전부인 농기계였다.

■ 김만석/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봄철의 모내기부터 온갖 정성을 들여 키워온 벼들이 누렇게 익는 가을철 추수시기가 오면 우리 전학년은 이삭줍기에 나섰다. 단 한톨의 낱알이라도 헛되이 버리지 않기 위해 고사리손이라도 나서야 한다는게 나라님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 황금들녘이 모두 베어지고 난 후 이삭줍기를 할때 논 한가운데서 덩그러니 서있던 허수아비는 유독 가장 기억에 남는다. 벼를 베었으니 허수아비도 치워야 마땅하거늘, 어른들은 일부러 그냥 세워 두셨다. 비록 허수아비였지만 애지중지 키운 곡식들을 참새들이 물어갈까봐 세웠던 것이고 가을 내내 참새를 쫓는데 큰 역할을 했으니 바로 뽑아서 버리기 아까우셨던 것이다. 게다가 어린아이 빨간색동저고리를 입히시느라 하루 품을 팔았으니 여간 서운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삭줍기는 논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있는 허수아비를 기준으로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교생들을 실에 구슬 꿰듯 엮어서 “원발부터 하나 둘, 하나 둘, 논두렁 앞으로 가” 두 줄로 늘어서 이삭줍기 대

열이 행군을 시작된다.

선두인 5학년, 6학년들은 자기 몸통만한 비료포대를 들고 옆에서 주운 이삭을 담는다. 들판 나들이가 처음인 철모르는 1학년, 2학년들은 형들과 함께하는 이삭줍기 놀이에 마냥 즐겁고 신바람이 났다.

아마도 그 녀석들은 내가 저학년때 그랬듯이 결실의 기쁨보다는 수업 안하고 들판에서 뛰어노는 기분이 더 삼삼했을 것이다.

학생들은 참새와 들쥐 녀석들이 물어가기 전에 빨리 주워야 한다며 마치 보물을 찾듯이 추수후 떨어진 이삭을 주워 비닐포대에 담는다. 고사리 손으로 거뒀들인 이삭이 제법 많다. 그렇게 거뒀들인 이삭이 어떤 논에서는 벼 한가마니도 나온다. 어린 손으로 온종일 주운 낱알이 벼 한가마니 밖에 안되지만 그것도 큰 수확이던 시절이다.

옆에서 학생들을 독려하던 선생님과 함께 서있던 논 주인 아저씨는 “농사는 돈으로 계산하면 손해지만 돈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억수로 남는 장사인 기라요. 벼나락이 주렁주렁 누렇게 익어 그걸 베어 내는 기분은 농사꾼 아니면 모르능거라예”라며 평

생의 농사철학이 들려주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논 한가운데서 가을바람에 옷자락을 펄럭이며 서 있는 허수아버의 가름한(?) 얼굴을 매만지시며 “한번은 예, 벼논을 둘러보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웬줄 아능교? 참새 새끼들이 벼나락을 모두 쪼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잠도 안자고 허수애비를 맹글어 가꼬 ‘귀신새’라고 이름 지어주고 참새들 좀 쫓아주거라 하고 세웠놓았지 예” 라며 선생님께 그간의 농사짓느라 고생했던 후 일담을 열심히 설명하셨다.

결실의 계절에는 이삭줍기만 한것은 아니었다. 중학생들은 직접 낫을 들고 벼베기 지원도 했다.

“낫질 조심하거라 잉... 거기 창식이 너 장난치지 말고. 다친다 다쳐, 이노무 짜삭!” 선생님들은 연달아 외치신다. 자식같은 제자들이 벼베기 ‘대민지원’에 나갔다가 어디 조금이라도 다칠세라 눈을 크게 뜨시고 일일이 챙기시느라 바쁘셨다.

지금의 이앙기나 트랙터, 콤바인 같은 기계화 영농은 꿈도 꾸기 힘들었던 그 시절은 손이 농사도구의 전부이던 시대였다. 모내기나 추수 때가 되면 집

집마다 일손이 모자란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니 중고등학생들의 손도 요긴하게 쓰여지던 때였다.

“오늘 벼 베다 잉.” 아버지의 한마디면 그날은 학교가 아닌 들판으로 등교해야 했던 시절이었다. 선생님도 벼베는 아이들 집의 사정을 감안해 결석을 해도 굳이 뭐라고 안하셨다. 어떤 선생님은 오히려 수업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벼베기 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결석한 제자에게 그날의 숙제를 알려주시곤 했다.

그렇게 십사일반 도우며 해마다 대풍을 일구고 알찬 결실의 기쁨을 맛보곤 했다. 그랬던 고향에는 지금 팔순의 어머니와 아버지만이 지키고 계신다.

논에는 덩치 큰 콤바인이 부르릉 부르릉 소리내며 벼를 베고 있으며, 요즘 참새들은 허수아버 따위는 콧방귀도 안뽀만큼 약이져서 아예 새가 날아오지 못하도록 하얀 그물을 둘러칠 만큼 세월이 바뀌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허수아버 우뚝 서있던 그때의 푸근하고 아릿한 고향. 결실의 계절에 들녘 한가운데 서서 그시절을 그리워하며 옛 생각에 젖어보고픈건 너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Y

